

## 노지포도(캠벨얼리) 표준진단표 갱신방향 설정 연구

이철휘\*, 서정학\*, 윤희기\*, 장현동\*, 박평식\*, 김현미\*

\*충청남도농업기술원

e-mail:Lch5127@korea.kr

### The Study on Setting the method for renewal of Grape(*Campbellarly*) Checklist for Consulting

Cheol-Hwi Lee\*, Jeong-Hak Seo\*, Hong-Ki Yoon\*, Hyun-Dong Jang\*, Pyeong-Sik Park\*, Hyun-Mi Kim

\*Chungcheongnam-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 요 약

작목별 표준진단표는 농촌진흥청에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초까지 60개의 진단표가 만들어졌다.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 진단표가 현장이 맞지 않아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 작목별 표준진단표는 농가경영컨설팅을 위한 일종의 도구이다. 이 도구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아 갱신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농가 현장에 맞는 표준진단표로 갱신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만나 갱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는 농촌진흥청, 각 도원, 농가대표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면접방법은 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한 심층면접방법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정리된 노지포도 표준진단표 설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초 노지포도 표준진단표를 개발한 시기에는 대립계와 소립계의 품종을 모두 포함하였다. 그래서 경영성과지표에는 대립계와 소립계가 나누어져 진단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하지만 지금 포도농가 재배현황을 보면 대립계 포도 농가의 대부분은 시설재배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노지포도라 함은 주로 캠벨얼리 품종이 대표한다. 이런 의미에서 진단표 제목을 노지포도(캠벨얼리)로 갱신하였다. 표준진단표는 구조적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농가 일반현황, 두 번째는 경영성과 지표 마지막으로 세부평가 진단표 이다. 농가 일반현황은 경영주 인적사항, 경영규모 및 주요 농기계 및 시설 그리고 생산 및 소득으로 나누어진다. 이 세가지 내용에 대하여 현행화하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주품종 항목에 소립계와 대립계로 나누어지는데 캠벨얼리로 통일하기 때문에 항목을 제거할 것이다. 중요한 항목은 경영성과지표와 세부진단항목이다. 경영성과지표의 경우 기존 진단표는 수량, 당도, 노동시간, 경영규모 등 고정적 정량적 요소로 선정되어 있다. 갱신방향은 정량적 항목을 지양하고 정성적 항목을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생산량의 경우 단순히 양적으로 수량을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성적 항목으로 상품의 생산비율 등과 같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경영성과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경영규모는 고정화되어 있는 항목으로 경영성과지표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요즘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은 농가별로 판매단가가 다르다. 이것은 품질도 있지만 경영주의 마케팅 및 홍보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판매단가가 경영성과지표 항목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세부진단항목은 크게 과원구조, 과원관리 그리고 경영관리로 나누어진다. 세부진단항목의 갱신방향은 농가의 재배기술과 경영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시비횟수를 통하여 토양관리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확 후 포도나무 잎의 낙엽율을 진단지표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나무의 건전성을 보는데 정확도가 높다. 다른 항목도 이러한 방향을 기준으로 진단지표 갱신하는데 적용할 것이다.

§ 위 연구결과는 농촌진흥청 출연금과제(PJ0148542020)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